



노랑때까치 / *Lanius cristatus*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야생동물

속국명	
과국명	때까치과
과명	Laniidae
일반특징	<p>노랑때까치는 비둘기보다 작은 크기의 새로, 머리와 등은 회갈색이다. 검은색의 굵은 선과 흰색의 가는 눈썹선이 있으나 눈썹선은 잘 보이지 않는다. 목덜미는 흰색인데, 암컷의 경우 가슴까지 흐릿한 비늘모양의 무늬가 있다.</p> <p>노랑때까치는 논밭이나 남가 가득한 숲보다는 나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숲에서 살아간다. 우리나라에는 봄과 여름에 날아와 살다 가는 여름철새이며,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. 둥지는 큰 나무나 작은 나무의 가지 위에 마른 이파리, 풀,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밥그릇 모양으로 만든다. 5월 말부터 6월 즈음에 청록색을 띤 잿빛 흰색과 옅은 얼룩점이 있는 알을 4~7개 낳는다. 먹이는 딱정벌레, 나비의 애벌레, 메뚜기, 매미, 파리와 같은 곤충류를 먹고, 박쥐나 참새와 같은 작은 동물을 먹기도 한다.</p>